

【기억과 서사】 자료

□ 내러티브 기억과 트라우마 기억

“모든 기억은 개별적이다.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다면, 이는 엄밀한 의미의 기억(remembering)이라기보다 일종의 합의(stipulating), 즉 과거에 대한 공동체 내의 합의된 이야기(story)라고 보아야 한다.”(수전 손택)

- 현재 인문사회과학에서 ‘트라우마’란 전쟁이나 재앙, 사고 등과 같은 극단적인 충격이 정상적 의식에서 분리되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환각, 악몽, 플래시백 등의 형태로 돌발적으로 재귀하는 증상을 가리킴.
- 트라우마는 본래 해부학 용어로서, 육체적 ‘상처’를 가리키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
- 그것이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용어로 정착되면서 육체적 상처나 감정적 충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신적 경험을 지칭하는 용어가 됨.
- 이 증상은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이나 미래를 전망하는 능력에 해를 입히고 결국 자기 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함.

습관적 기억	내러티브 기억(narrative memory)	트라우마 기억(traumatic mem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인간적인 능력 - 인간이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는 정신활동을 지칭함. -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이야기 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개인은 정상인의 심리를 유지하고 살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러티브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기억. - 극도로 충격적인 경험은 내러티브에서 이탈하여 무의식에 고착되어버림으로써 의식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함. - 아무런 유동성 없이 고착된 체험을 시시때때로 재연. - ‘트라우마 기억’은 철저히 고립된 사건으로, 사회적 요소를 전혀 지니지 못함.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인 피에르 자네(Pierre Janet)가 고안하고, 동료였던 프로이트가 받아들인 고전적 정신분석학의 이론틀.		

- 프로이트가 이후의 트라우마 논의를 위해 제공한 가장 시사적인 화두는 “억압된 것의 기억”..
- 트라우마는 한편으로는 전혀 기억할 수 없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원초적인 생생함을 유지한 채 순식간에 출몰한다는 점에서 역설적.
- 외부로부터 가해진 충격은 온전히 체험되지 못한 채 내면적 상처로 ‘억압’되어 있다가 원래의 상

황과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 뒤늦게 체험됨.

- 과거는 뒤늦게 나타나 고통을 호소함으로써 현재와 갈등을 빚게 됨.
- 이와 같은 과거의 '직접성'에 비추어볼 때, 트라우마는 통상적인 '역사'의 영역을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음.
-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유기적 관계에 기초한 역사의 의미란 허상에 지나지 않음.
- 어떠한 진위의 판별이나 인과적 설명, 내러티브를 통한 재현도 트라우마를 상쇄할 수 없음.
- 트라우마가 보장하는 진실이란 오직 실존적 고통의 현존이며, 그 외의 것은 모두 허위에 불과함.

□ 애도와 용서

-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기억은 타자의 죽음을 목격한 순간의 인상에 지배당함.
- 생생한 과거의 이미지는 내가 채 이해하지 못한, 내게는 불가항력적인 관건. 내 의지에 따라 환기하고 적절한 언어로 재현할 수 있는 체험 대신, 시간의 경과가 무색해지게 생생한 이미지가 현재의 삶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와 삶을 잠식해버림.
- '트라우마 기억'은 어떠한 그럴듯한 변명도 용인하지 않으며 병사들의 자아에 타격을 가함. 베트남전쟁 이후 미국 심리학회에 전문용어로 정착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disorder, PTSD)'는 이와 유사한 증상이 현대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알려줌.

□ 프로이트: 우울과 애도

- 프로이트는 상실된 대상에 대한 집착을 '우울'(Melancholie)이라고 지칭.
- '우울'은 사랑하던 대상의 상실이 마치 자기 자신의 상실인 양 착각하게 되는 심리 현상으로, 심할 경우 만성자폐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프로이트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애도'(Trauer).
- 애도란 타자의 상실을 지속적으로 슬퍼하는 행위임.
- 애도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과거를 기억하되,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 프로이트: 우리가 타자의 상실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르시시즘적 '동일시'라는 퇴행적 심리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타자를 애도할 수 없다고 말함.
- 인간이 슬픔을 느끼는 건 소중한 그것의 상실이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기 때문.
- 오로지 상실의 인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다시금 '자유롭고 장애 없이'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음
- 프로이트적 의미의 '애도'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 어차피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독려한다는 점에서 고무적.
- 우리가 '최종'의 진실을 전유할 수 없다면, 다양한 재현의 매체를 개발하여 과거의 고통을 기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
- 이는 곧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끊임없이 반성하는 일이기도 함.

□ 라카프라(미국의 역사이론가)

- 라카프라, 현대 문화 전체가 트라우마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기초해 있다고 비판.
- 현대문화에는 트라우마에서 일상성을 초극하는 숭고함을 찾으려는 경향이 만연.
- 홀로코스트나 원폭에 대한 기념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듯이, 개인이나 집단은 트라우마를 통해 스스로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 함.
- 이때 트라우마의 고통은 놀랍게도 유폴리아(Euphoria, 다행감)적 자기도취로 전화하여 자기 정체성의 원천, 즉 “기원을 이루는 트라우마들(founding traumas)”이 됨. 뼈아픈 희생이 일종의 세속화된 순교행위로 ‘승화’.
- 라카프라는 트라우마에 대한 각종 재현들이 추구하는 이른바 “부정적 승화”는 그 자체로 트라우마의 증상일 수 있다고 역설.
- 예: 홀로코스트에 대한 각종 재현들(소설, 영화, tv시리즈 등)의 난무는 과거와의 진지한 대면을 오히려 가로막음.
- 이들은 표면적으로 역사적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해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형화된 상징적 이미지를 답습함으로써 고통의 기억을 경화(硬化)시킴.
- 라카프라는 이와 같은 트라우마의 “상징적 전치”가 반복되는 와중에 자칫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 그리고 윤리적 책임 문제가 증발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 결국 고통은 가중됨.

□ 기억과 후각

1) 마들렌 효과(madeleine effect) 또는 푸르스트 현상(Proust phenomenon) 푸르스트 메모리(Proustian memory) 또는 푸르스트 효과(Proust Effect),

* Proust phenomenon

“the sudden, involuntary evocation of an autobiographical memory, including a range of related sensory and emotional expressions. The term is named for French writer Marcel Proust (1871 - 1922), who described, in the first section of his multivolume novel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In Search of Lost Time), how the experience of eating a madeleine (a small, shell-shaped sponge cake) transported him in memory back to childhood. Also called Proustian memory.”¹⁾

- 내가 언제나 슬픈 마음으로 올라가는 이 가증스러운 계단에서는 바니시 냄새가 났다. 이 냄새는 내가 매일 저녁마다 느끼는 그 특별한 슬픔을 흡수하고 고정해, 이런 후각적인 것에 대해 별 볼 일 없는 내 지성보다는 내 감성에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마치 잠을 자면서 느끼는 치통을, 우리가 이백 번이나 계속해서 구하려고 애쓰는 물에 빠진 소녀라고 지각하거나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몰리에르의 시구절로 지각하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 지성이 치통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모든 영웅적인 행위나 시 운율에 대한 속임수를 제거함으로써 커다란 안도감을 주는 것과도 같다.

1) <https://dictionary.apa.org/proust-phenomenon>

그런데 이런 안도감과는 반대로, 내 방에 올라가야 한다는 슬픔은 계단 특유의 바니시 냄새를 흡입함으로써-정신적인 침투보다 더 독성이 강한 - 아주 빨리, 거의 순식간에, 갑작스럽고도 영큼하게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난 모든 출구를 막고, 덧문을 닫고, 이불을 들추고, 나 자신의 무덤을 파헤치면서, 잠옷이라는 수의를 걸쳐야만 했다.²⁾

-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다. 지나가 버린 과거를 되살리려는 노력은 헛된 일이며, 모든 지성의 노력도 불필요하다. 과거는 우리 지성의 영역 밖에, 그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우리가 전혀 생각도 해 보지 못한 어떤 물질적 대상 안에(또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감각 안에) 숨어 있다. 이러한 대상을 우리가 죽기 전에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우연에 달렸다.

이처럼 콩브레에서 내 잠자리의 비극과 무대 외에 다른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지도 오랜 어느 겨울 날, 집에 돌아온 내가 추위하는 걸 본 어머니께서는 평소 내 습관과는 달리 홍차를 마시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셨다.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웬지 마음이 바뀌었다. 어머니는 사람을 시켜 생자크라는 조가비 모양의, 가느다란 팬 틀에 넣어 만든 프티트 마들렌이라는 짧고 통통한 과자를 사 오게 하셨다. 침울했던 하루와 서글픈 내일에 대한 전망으로 마음이 울적해진 나는 마들렌 조각이 녹아든 홍차 한 숟가락을 기계적으로 입술로 가져갔다. 그런데 과자 조각기 섞인 홍차 한 모금이 내 입천장에 닿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내 몸 속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감미로운 기쁨이 나를 사로잡으며 고립시켰다. 이 기쁨은 마치 사랑이 그러하듯 귀중한 본질로 나를 채우면서 삶의 변전에 무관심하게 만들었고, 삶의 재난을 무해한 것으로, 그 짧음을 착각으로 여기게 했다. 아니, 그 본질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초라하고 우연적이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 도대체 이 강렬한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 나는 그 기쁨이 홍차와 과자 맛과 관련 있으면서도 그 맛을 훨씬 넘어섰으므로 맛과는 같은 성질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디서 그것을 포착해야 할까? 두 번째 모금을 마셨다. 첫 번째 모금이 가져다준 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세 번째 모금은 두 번째보다 못했다. 멈춰야 할 때다. 차의 효력이 줄어든 것 같았다. 내가 찾는 진실은 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차가 내 속에 있는 진실을 일깨웠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 채 점점 힘이 빠지면서 무한히 같은 증언만을 되풀이할 뿐이지만, 내가 지금은 이 증언을 해석할 줄 모르나 나중에 결정적인 해명을 위해 내가 요구하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온전한 상태로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정신 쪽으로 향한다. 정신이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매번 정신은 스스로를 넘어서는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심각한 불안감을 느낀다. 정신이라는 탐색자는 자기 지식이 아무 소용없는 어두운 고장에서 찾아야만 한다. 찾는다고? 그뿐만이 아니다. 창조해야 한다. 정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오로지 정신만이 실현할 수 있고, 그리하여 자신의 빛 속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마주하고 있다. (……)

분명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팔딱거리는 것은 그 맛과 연결되어 맛의 뒤를 따라 내게로까지 올

2) 마르셀 프루스트, 김희영 옮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1), 민음사, 2017, pp.58-59.

라오려고 애쓰는 이미지, 시각적인 추억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멀리서 너무도 희미하게 몸부림치고 있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휘저어 놓은 색채들의 포착할 수 없는 소용돌이가 뒤섞인 어렴풋한 그림자일 뿐이다. (……)

그러다 갑자기 추억이 떠올랐다. 그 맛은 내가 콩브레에서 일요일 아침마다(일요일 미사 시간에 외출할 수 없었다) 레오니 아주머니 방으로 아침 인사를 하러 갈 때면, 아주머니가 곧잘 홍차나 보리수차에 적셔서 주던 마들렌 과자 조각의 맛이였다. 실제로 프티트 마들렌을 맛보기 전 눈으로 보기만 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빵집 진열장에서 자주 보면서도 먹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콩브레에서 보낸 나날과 멀리 떨어져 보다 최근 날들과 연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오랫동안 기억 밖으로 내던져진 추억들로부터 아무것도 살아남지 않아, 모든 것이 다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

일본 사람들의 놀이에서처럼 물을 가득 담은 도자기 그릇에 작은 종잇조각들을 적시면, 그때까지 형체가 없던 종이들이 물속에 잠기자마자 곧 퍼지고 뒤틀리고 채색되고 구별되면서 꽃이 되고, 집이 되고, 단단하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집 정원의 모든 꽃들과 스완씨 정원의 꽃들이, 비본 냇가의 수련과 선량한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작은 집들과 성당이, 온 콩브레와 근방이, 마을과 정원이, 이 모든 것이 형태와 견고함을 갖추면 내 찻잔에서 솟아 나왔다.³⁾

□ 라쇼몬 효과

1. 영화 <라쇼몬>(Rashomon, 구로사와 아키라, 1950)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으로 해석하면서 본질 자체를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골라 ‘취사선택’한다는 의미로도 쓰는데, 그래서 현재의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재구성하는 기억이라고도 한다. 라쇼몽 효과는 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가 1950년 찍은 영화 <라쇼몬(羅生門)>에서 비롯된 말이다. 라쇼몽은 같은 사실이라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영화로 유명하다.

사무라이 부부가 숲길을 지나던 중 도적을 만나 아내는 겁탈을 당하고 사무라이는 죽임을 당한다. 이를 목격한 나무꾼이 사건을 신고해 도적은 재판을 받게 되지만, 살인 사건에 대한 진술은 제각각 다르다. 도적은 자신이 무사 남편을 살해한 것은 맞지만 무사 아내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진술한다. 사무라이 부인은 도적이 사라진 후 남편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경멸을 느껴 찢려 죽었다고 말한다. 영매사에게 불러나온 죽은 사무라이는 겁탈 당한 아내가 강도에게 같이 도망치자고 해서 치욕감에 자살했다고 진술한다. 사건을 신고했던 나무꾼은 사무라이의 아내가 남편과 강도 모두에게 남자답지 못하다고 모욕하자 남편이 마지못해 도적과 결투하다 죽었다고 주장한다.”⁴⁾

-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단편 소설 「라쇼몬」과 「덤불 속에서」를 합쳐, <라쇼몬>이라는 작품으로 완성함.

- 1951년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 황금사자상(최고상) 수상; 1952년 미국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3) 마르셀 프루스트, 김희영 옮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1), 민음사, pp.85-91.

4) [다음트렌드지식사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54XX58000166>

1952년 전미비평가 위원회상

- 한 남자(사무라이)가 숲 속에서 살해됨. 용의자는 모두 자신이 범인임을 주장함.
- “라쇼몬 이펙트”라는 용어는 이 영화에서 비롯됨

□.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덤불 속」(『라쇼몬』)

□ 검위비사에게 대답한 나무꾼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저 시신을 발견한 것은 제가 틀림없읍죠. 저는 오늘 아침, 언제나처럼 뒷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시신은 연한 남색 옷에 도시에서들 쓰는 두건을 쓴 채로 하늘을 보고 누운 자세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단칼에 베었다고는 해도 가슴팍에 난 상처라서 시신 근처에 떨어진 땃잎이 진한 빨강 물감에 절인 듯 했습니다. (…)

칼 같은 건 아 보였느냐고요? 아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옆 삼나무 뿌리께 밧줄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 밧줄 말고 빗도 하나 있었습니다. 시신 근처에 있던 것은 그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 검위비사에게 대답한 유령 승려의 이야기

“저 죽은 사내와 어제 마주친 건 사실입니다. 어제 (….) 그러니까, 정오 무렵이었을 겁니다. 마주친 곳은 세키야마에서 야마시나 쪽으로 가는 도중이었습시다. 저 사내는 말에 탄 여자와 같이 세키야마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자는 샷갯을 썼기 때문에 얼굴은 못 봤습시다. 본 거라곤 그저 하기가사네(萩重)⁵⁾같은 옷 색깔뿐입니다. 말은 밤색에 하얀색이 섞인 것이었는데, 아 그리고 보니 갈기를 잘 깎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길었느냐고요? 갈기 길이가 네 치쯤 됐을까요? 하여튼 제가 출가한 몸이라 거기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내는 (….) 아뇨, 칼도 차고 있었고 활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검게 옷칠한 화살 통에 스무 개도 넘어 보이는 화살이 들어 있었던 것은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 검위비사에게 대답한 방면(放免)의 이야기

“제가 포박한 사내 말씀입니까? 그놈은 분명히 다조마루라는 악명 높은 도둑입니다. 다만 제가 붙잡았을 때에는 아마도 말에서 떨어졌는지, 아와타구치의 돌다리 위에서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시각요? 시각은 어젯밤 초경 무렵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잠을 뻗하다가 놓쳤을 때도 똑같이 이 감색 옷에 날땀 붙은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 말고도 보시는 바와 같이 활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시체가 된 남자가 가지고 있던 것도 (….) 그럼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이 다조마루가 틀림없습시다. 가죽을 감은 활, 검은 옷칠화살 통, 매 깃 달린 화살이 열 일곱 대, 이걸 모두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거겠죠. (…)

이 다조마루란 놈은 장안을 어슬렁거리는 도둑놈들 중에서도 여자 좋아하기로 유명한 놈입니다.

5) 검은 암홍, 속은 청색으로 된 가을에 입는 옷

작년 가을 도리베데라의 빈도라발라타사 상의 뒤쪽 산에 참배하러 온 부인 하나가 여자아이와 함께 살해되어 있었던 게 이놈 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검위비사에게 대답한 노파의 이야기

“네, 저 시체는 제 사위입니다. (···) 성격이 서글서글해서 원한 같은 거 살 리가 없습니다. 딸 말 씀입니까? 딸의 이름은 마사고, 나이는 열아홉입니다. 이 아이는 남자 못지않을 정도로 활달한 아 이지만, 단 한번도 다케히로 이외의 남자를 사귀 적이 없습니다.”

□ 다조마루의 자백

“저 사내를 죽인 것은 남니다. 하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으나? 그건 나 도 모릅니다. 잠깐, 좀 기다리세요. 아무리 고문을 해도 모르는 걸 볼 수는 없잖습니까.

저는 어제 정오 조금 지나서 저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바람이 부는 바람에 샷갓에 드리운 천이 날려서 얼핏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주 살짝, 보였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이미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어찌면 그게 이유 중 하나였을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그 여자의 얼굴이 보살처럼 보였던 겁니다. 나는 그 순간 사내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여자를 빼앗자고 결심했습니다.

뭐, 사내를 죽이는 것쯤이야,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여자를 빼앗게 되면 반드시 사내는 죽는 거거든요. 다만 나는 죽일 때 허리에 찬 칼을 쓰지만 당 신들은 칼은 쓰지 않고 그저 권력으로 죽이고 돈으로 죽이고 여차하면 위해 주는 척하는 말만으로도 죽이죠. 그러면 피는 흐르지 않고, 사내는 멀쩡하게 살아있지. 하지만 그래도 죽인 겁니다. 죄의 깊이를 보면 당신들이 더 나쁜지 내가 더 나쁜지, 어느 쪽이 더 나쁜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사내를 죽이지 않고도 여자를 빼앗을 수 있다면 굳이 나쁠 거야 없죠. 아뇨, 그때 생각으 로는 가능한 한 사내를 죽이지 않고 여자를 빼앗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마시나의 역로에 서는 아무래도 힘들었죠. 그래서 나는 부부를 산 속으로 끌어들일 궁리를 했습니다.”

- 다조마루는 맞은편 산에 고분이 있는데, 고분에서 보물을 찾았다고 말함. 생각이 있으면, 뭐든 싸게 팔고 싶다고 말함. 사내는 마음이 동해 다조마루를 따라가고, 아내도 동행함. 말을 탄 아내는 말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하고, 다조마루와 사내는 깊은 삼나무 숲으로 들어감.
- 다조마루는 깊은 숲에 도착하자, 사내를 넘어뜨리고 삼나무에 묶어버림.
- 다조마루는 곧 사내의 아내에게 가서 남자가 아픈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함. 놀란 아내는 샷갓을 벗고, 다조마루의 손을 잡은 채 덩불 속으로 들어감.
- 사내의 아내는 남편이 삼나무에 묶여 있는 걸 보자, 단도를 빼들고 다조마루를 공격함. 그러나 결국 사내의 아내는 겁탈 당함.

“나는 결국 생각대로 사내의 목숨을 끊지 않고 여자를 손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내의 목숨을 끊지 않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사내를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드려 울고 있는 여자를 뒤로하고 덩불 바깥으로 도망치려 하는데 여자가 갑자기 내 팔에 미친 듯이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띄엄띄엄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두 사내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 은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중 어느 쪽이든 살아남은 사내를 따르겠다, 그렇게

헉헉대며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사내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격렬하게 치솟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틀림없이 내가 당신네에 비해 아주 잔혹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그건 당신네가 그 여자 얼굴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순간의 타오르는 듯한 눈동자를 못 봐서라고요. 나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혹시 벼락에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로 맞고 싶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오직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생각하는 싸구려 색욕이 아니었습니다. (...) 어두컴컴한 덩굴 속에서 지그시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사내를 죽이지 않는 한 그 곳을 떠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를 죽이더라도 비겁한 방법을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사내를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고 맞대결을 하자고 했습니다. (...) 내 칼은 스물세 합째에 상대방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스물세 합째에, 이 부분은 부디 잊지 마시기를. 나는 지금도 그 점만은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와 스무 합 이상을 겨룬 것은 하늘 아래 그 사내 단 한 사람뿐이었으니까요.

나는 사내가 쓰러짐과 동시에 피 묻은 칼을 내리면서 여자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여자가 온데간데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여자가 어느 쪽으로 도망쳤을까, 하고 삼나무 숲 사이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밧잎 위에는 이렇다 한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

다만, 교토에 들어가기 전에 칼은 버렸습니다. (...) 자백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차피 한 번은 백단향 꼭대기에 목을 맬 운명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아무쪼록 극형에 처해 주시지요.”

□ 기요미즈데라(清水寺)에 온 여자의 참회

그 연한 감색 옷을 입은 사내는 저를 욕보이고 나더니 묶여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비웃는 듯한 웃음을 날렸습니다. 남편은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야 온 몸을 감고 있는 밧줄은 한층 더 몸을 바짝바짝 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엉겁결에 남편 곁으로 쓰러지듯 달려갔습니다. 아뇨,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순식간에 저를 넘어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남편 눈 속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번쩍임이 들어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어라 말로 할 수 없는 (...) 저는 지금도 그 눈을 생각하면 몸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남편은 그 찰나의 눈빛 속에서 마음의 모든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번쩍이고 있었던 것은 노여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단지 저를 멸시하는 차가운 빛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내에게 건어차인 것이 아니라, 그 눈빛에 얻어맞는 것처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외치며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 다시 정신이 들고 보니, 사내(다조마루)는 사라지고 없음
- 남편은 여전히 삼나무에 묶여 있음.
- 남편의 눈빛은 여전히 증오의 빛을 담고 있었음

“여보, 이렇게 된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죽어주세요. 당신은 제 부끄러운 꼴을 보셨습니다. 저는 이대로 당신 혼자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죽을힘을 다해 거기까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불쾌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

이었습니다. (….) 다행스럽게도 단도만은 제 발 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도를 치켜들고 한번 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목숨을 제게 맡겨 주십시오. 저도 바로 가겠습니다.” (….) 남편은 저를 여전히 멸시하면서 “죽여.”라고 외마디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꿈속을 헤매듯 남편의 푸른색 옷 가슴팍에 단도를 찔러 넣었습니다.

저는 이때 또 기절을 하고 말았던 모양입니다. 겨우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는, 남편은 이미 묶인 채로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 창백한 얼굴 위에는 대나무 섞인 삼나무 숲 사이로 석양이 한 줄기 비치고 있었지요. 저는 울음을 삼키며 시신을 묶고 있는 밧줄을 풀었습니다. (….) 단도를 목에 꽃기도 하고 산기슭에 있는 못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봤지만 결국 죽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처지이니, 자량이 될 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남편을 죽인 저는, 도둑놈에게 치욕을 당한 저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종단 말입니까?

□ 무녀의 입을 빌린 혼백(남편, 사무라이)의 이야기

도둑놈은 아내를 욕보이고 나더니 거기 앉은 채로 여러 가지 말로 아내를 달랬다. 나는 물론 말을 할 수 없었다. 몸뚱이는 삼나무 밑동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이에 몇 번이나 아내에게 눈짓을 했다. 이 사내가 하는 소리를 믿지 마라, 뭐라고 하든 거짓인 줄 알아라, 나는 그런 뜻을 전하려 했다. 그러나 아내는 기운 없이 늘어진 모양새로 쌓여 있는 댓잎 위에 앉아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다. 그게 어쩐지 도둑놈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이 보이지 않는가? 나는 질투심으로 몸부림쳤다. 하지만 도둑놈은 이러쿵저러쿵 교묘하게 이야기를 끌고 나갔다. 한번이라도 몸을 더럽히고 나면 남편과는 끝장난 거다. 그런 남편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신의 아내가 될 생각은 없는가? 자기는 네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했기에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다. 도둑놈은 결국 대답하게도 그런 이야기까지 꺼냈다.

도둑놈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자 아내는 멍하니 고개를 쳐들었다. 나는 그때까지 그때만큼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는 코앞에 묶여 있는 나를 두고 뭐라고 도둑놈에게 대답했던가? 나는 중유(中有)⁶⁾를 헤매고 있으면서도 아내의 그 대답이 생각날 때마다 어김없이 불붙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아내는 분명 이렇게 말했다. “그럼 어디든지 데리고 가 주세요.”

아내의 죄는 그뿐만이 아니다. 그것뿐이라면 이 흑암 속에서 지금 이토록 괴롭지는 않을 것이다. 아내는 꿈이라도 꾸는 듯 도둑놈과 손을 맞잡고 덩불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든 안색이 변해서는 삼나무 밑동에 묶여 있는 나를 가리켰다.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아내는 미친 듯이 몇 번이나 이렇게 부르짖었다.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마치 폭풍처럼 까마득한 암흑의 심연으로 나를 거꾸로 떨어뜨릴 것만 같다. 일찍이 이렇게 독살스러운 말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적이 있을까? 일찍이 이처럼 저주스러운 말이 인간의 귀에 들린 적이 있을까? 일찍이 이렇게 (….)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도둑놈조차 안색이 변하고 말았다.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아내는 그렇게 부르짖으며 도둑놈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도둑놈은 지그시 아내를 보기만 할뿐 죽이겠다고도 살리겠다고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다음 순간, 아내는 댓잎 위로 단 한 방에 걸터차여 쓰러졌다. 도둑

6) 사람이 죽어 내세에 가기 전에 거치는 곳

놈은 조용히 팔짱을 끼더니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여자를 어떻게 할까? 죽일까 아니면 살릴까? 고개만 끄덕이면 돼. 죽일까?” 나는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도둑놈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었다.

아내는 내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 뭔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다가 싶더니 곧장 덩굴 속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도둑놈도 순식간에 뛰어갔으나 옷자락조차 잡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저 환상을 보는 듯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둑놈은 아내가 도망친 뒤 칼과 활을 주워들더니 나를 묶고 있는 밧줄을 한군데만 잘라주었다. (…)

나는 간신히 삼나무 밑둥에서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일으켰다. 내 앞에는 아내가 떨어뜨리고 간 단도가 저 혼자 반짝이고 있다. 나는 그것을 집어 들고 단숨에 내 가슴에 박아 넣었다. 뭔가 비릿한 덩어리가 입에서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고통은 조금도 없었다. (…)

그때 누군가 살금살금 내 곁으로 다가오는 자가 있다. 나는 그쪽을 보려고 했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어느새 흐린 어둠이 자욱하다. 누군가, 그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가만히 내 가슴의 단도를 뽑았다. 동시에 내 입속에는 다시 한 번 피가 넘쳐흐른다. 나는 그로써 영원히 중유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 기억, 상상력, 해석

■ 기억과 서사, 해석

옛날에 미자하(彌子瑕)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위(衛)나라 군주에게 총애를 받았다. 위나라 법에 따르면, 군주의 수레를 몰래 탄 사람은 월형(刖刑)을 받았다. 미자하의 어머니가 병이 나자, 어떤 사람이 밤에 몰래 미자하에게 알려주었다. 미자하는 [마음이 급해져서 사람들을 속여] 군거[君車]를 몰래 타고 나갔다. 군주가 이 소식을 듣더니, 미자하를 칭찬하여 말했다.

“효성스럽구나! 어머니를 생각하여 월형을 받을 것도 잊다니!”

다른 날, 군주와 함께 과수원에 놀러나갔다. 복숭아를 먹었는데 맛이 달자, 다 먹지 않고 남겨 군주에게 맛보게 하자, 군주가 말했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달콤한 맛도 잊고, 과인에게 맛보게 하는구나!”

미자하가 나이가 들자 미모가 쇠하고, 군주의 사랑도 식었다. 군주에게 죄를 짓자, 군주가 말했다.

“이 자는 옛날에 내 수레를 몰래 탄 적이 있고,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게 한 적이 있다.”

(『한비자』(韓非子)「세난」(說難))

■ 이야기와 해석

-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의 새로운 해석

“해석의 유동성은 때로 엉뚱한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그 여자는 해석의 오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맹모삼천지교의 일화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훈은 맹모가 무덤 근처의 나쁜 교육 분위기를 피해 시장거리로 이사했다가, 거기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자 학교 근

처로 이사했다고. 하지만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맹자 어머니는 무덤 근처에서 살며 먼저 자식에게 인간 존재의 유한성,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삶 앞에서 겸허해야 함을 가르친다. 그 다음으로 시장거리에서 현실적인 삶의 법칙들을 가르친다.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 대해 알고 나면 시장의 원리를 받아들일 때도 탐욕스러워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야 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친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일상을 지배하는 생존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학문을 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 김형경, 『세월』.